

# 교촌, 국내 1위 수성 이어 글로벌 'K-치킨' 대표기업 목표

작년 매출 4476억, 영업익 410억 판교 신사옥 8월 착공, 2023년 완공  
글로벌 6개국에서 42개 매장 운영  
상반기 싱가포르·중동 등 9국 진출

올해 30주년을 맞은 교촌에프앤비(이하 교촌)가 국내 치킨업계 1위를 수성한데 이어 세계 무대로 지평을 넓힌다. 지난해 가맹점 전체 매출 사상 첫 1위 달성,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돌파하며 국내 주식시장에 안착한 교촌은 경기도를 거점으로 글로벌 개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일 회사측에 따르면 교촌은 오는 2023년 경기도 시대를 연다. 최근 이사회를 통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신사옥 신축을 결정한 것이다. 지난 2004년 경상북도 칠곡에서 경기 오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지 약 20년 만이다.

신사옥은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오는 8월 착공해 2023년 완공이 목표다. 교촌은 이번 사옥 이전으로 우수한 재를 영입하며 업무 결속과 효율성을



교촌에프앤비 판교 신사옥 투시도.

/신동아건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기도 평택시에는 수도권물류센터 신축 개관했다. 국내 사업의 물량 증가와 HMR 등 신규 사업 확장에 따른 처리 능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교촌은 새로운 수도권물류센터를 통해 기존 수용 능력인 약 85t보다 2배 이상 높아진 일 평균 200t 이상의 물량을 수용할 수 있게 됐다.

교촌은 이번 상반기 내로 경상남도 김해에 남부물류센터도 완공할 예정이다. 교촌은 기존의 호남권, 영남권 물류센터에 포함해 전국 4곳의 물류센터로 기반으로 국내외 사업 확장 및 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운영에 박차를 가한다.

이러한 행보에는 탄탄한 실적과 주식시장 안착이 힘을 실었다. 교촌은 지난

해 연결기준 매출 4476억원, 영업이익 410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또 같은 해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최초로 국내 증시에 상장하며 481억원을 조달받은 바 있다. 교촌은 경기도의 첨단 신사업 다각화 및 해외사업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촌은 지난 15일 건강식 및 가정간편식(HMR) 트렌드를 포착해 밀키트 기업 프레시지와 공동개발한 교촌통순살치킨 '제품을 내놓았다.' 교촌 통순살치킨 '은 교촌 F&B가 프레시지와 협업한 제품으로 교촌F&B의 30년 노하우와 프레시지의 상품 기획, 유통 역량이 담긴 제품이다. 교촌은 이번에 출시되는 '교촌 통순살치킨'을 시작으로 노하우를 담은 다양한 간편식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최근 주목받는 수제맥주로 신사업을 구축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각화했다. 지난달에는 수제맥주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을 취득한 바 있다. 수제맥주 브랜드 문베어브루잉을 운영하는 인텔지를 120억원에 인수했으며, 여기에

는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설비, 차량운반구, 비품, 공·기구, 케그 및 CO2 용기, 계약, 지적재산권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해외 사업 매출 120억원을 올린 교촌은 앞으로 해외 진출을 본격화한다. 현재 6개국 42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상반기 내 싱가포르, 중동 및 아프리카 9개국 진출 계획 중이다. 전 세계적 K-푸드 열풍도 해외 사업 확대에 우호적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자세로 변화의 바람을 받아들이자'고 선언한 교촌은 30주년 역사를 딛고 올라서 해외에서도 K-치킨 대표 기업으로 자리 매김한다는 목표다.

소신세 교촌 회장은 "올해 교촌은 기업 비전인 '글로벌 종합식품외식그룹'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기존 틀을 깨고 변화에서 길을 찾는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 태도만이 함께 지속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 “국내 1위, 글로벌 제약 50대 기업 될 것” “도심 복판서 자연과 교감... 캠핑 떠나요”

유한양행, 창립 95주년 기념행사

국내 1위 제약기업 유한양행이 20일 뜻깊은 창립 95주년을 맞아, 글로벌 50대 제약 기업으로의 도약 의지를 밝혔다.

유한양행은 지난 18일 서울 대방동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9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조국제 유한양행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유한 100년사 창조를 불과 5년 앞둔 지금 국내 1위를 넘어 글로벌 제약 50대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며 "현재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신약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하반기출시를 앞두고 있는 레카로를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성공시키고 글로벌 임상을 차질없이 진행시켜 조기에 글로벌 시장에 출시,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성원 모두 '위대한 유한, 글로벌 유한(Great Yuhan, Global Yuhan)'이라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할 수 있다는 한마음으로 창조적인 발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며 "5년 뒤 펼쳐질 찬란한 유한 100년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향후 후배들에게 우리들의 선배들처럼 멋진 유한을 남겨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근속자 표창식을 갖고 김재교 전무이사 등 24명의 30년 근속사원, 52명의 20년 근속사원, 31명의 10년 근속사원 등 모두 107명의 장기근속자들에게 상패와 상금을 공로를 치하했다. /이세경 기자 seillee@

코오롱스포츠 '캠핑 에브리웨어' 텐트·해먹 등 사용 휴식공간 배치 전시 공간에 풀벌레소리 등 흘러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코오롱FnC)이 운영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가 6월 19일부터 8월까지 한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전시 기획사 글린트와 네 번째 전시 '캠핑 에브리웨어'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공간 디자인 그룹인 스튜디오 프러그먼트가 디자인한 설치 작품으로 꾸며졌다. 스튜디오 프러그먼트는 특정 장소가 주는 시선의 흐름을 중시하며, 은유적인 방법을 통해 공간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탁월한 그룹이다.

'캠핑 에브리웨어'는 텐트, 타프, 해먹과 같은 캠핑에 있어서 가장 큰 구조물을 이루는 용품의 소재를 사용해 산의 지형을 표현하고, 그 안에 휴식 공간을 배치해 캠핑을 떠난 것과 같은 느낌을 주도록 기획했다. 자연과 교감하며 사색의 시간을 즐기도록 자연의 소리와 영상 등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전시



코오롱스포츠가 한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네 번째 전시인 '캠핑 에브리웨어'를 시작했다.

/코오롱FnC

의 형태지만 자유롭게 앉거나 누워서 편안한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전시 공간에서는 물과 바람이 흐르는 소리, 모닥불과 풀벌레, 빗소리 등 야외 캠핑에서 들리는 소리를 초지향성 스피커를 통해 마치 ASMR처럼 들을 수 있다. 또한 설치된 패브릭을 스크린 삼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로 이어지는 콘스탄츠 호수가 천천히 변화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으며 곳곳에서 휴식과

여행,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을 키워드로 한 문장들을 발견할 수 있다.

박성철 코오롱스포츠 브랜드 매니저는 "코오롱스포츠의 한남 플래그십 스토어의 전시는 항상 자연과 함께 한다. 이번에는 캠핑이라는 주제로, 도심 속에서 잠시 자연과 함께 휴식을 즐기자는 의미를 담았다. 한여름 썩듯 같은 전시를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은미 기자

## ‘렉키로나’ 남아공 변이바이러스에 효과

셀트리온, 동물시험서 유효성 확인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CT-P59)의 남아공 '베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동물효능시험 결과, 바이러스 역가 감소 및 체중 감소 방어 효과 등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실험용 쥐 50마리를 대상으로 렉키로나를 투입한 결과, 약물을 투입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렉키로나 투여군에서 바이러스 역가가 크게 감소하고 체중 감소도 줄어드는 등 임상적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앞서 진행된 페렛(족제비) 대상 시험에서의 임상 적용 용량 보다 낮은 용량에서도 효능이 입증돼 렉키로나의 높은 중화능을 확인하게 됐다. 생존율

평가에서도 렉키로나의 생존율은 100%인 데 반해 대조군의 생존율은 50%에 그쳤다.

셀트리온은 지난 4월,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의 남아공(베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페렛 대상 동물효능시험에서 야생형 바이러스와 비교해 바이러스 중화능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결과는 미국 생물화학 생물물리 연구저널 'BBRC'에 실려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공신력도 확보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이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 인도(델타), 브라질(감마) 변이에 대해서도 동물효능시험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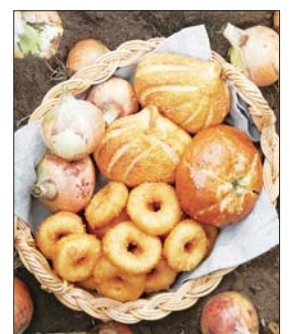
## 파리바게뜨, 무안 햇양과 '양파빵 4종'

SPC그룹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무안 햇양과를 활용한 '양파빵 4종(사진)'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SPC그룹은 지난 15일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께 올해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 양과를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파리바게뜨는 신선한 무안 양과를 활용한 신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양과의 모양을 구현한 '페이크푸드(fake food)' 형태로 선보였다.

이번 신제품은 ▲네 가지 토핑과 아삭아삭 양과가 듬뿍 들어간 양과꽃빵 '양과꽃이 피었습니다' ▲무안 양과의 단면을 형상화한 크립치즈 양과빵 '아이엠 무안양과' ▲남녀노소, 어른아이 모두 좋아하는 어린이형 '너와 나의 양



파고리' ▲양과, 햄, 치즈, 옥수수 콘이 들어간 피자빵 '양과 품은 달' 등 4종으로 구성됐다.

무안양과는 양질의 황토 토양에서 병충해를 막아주는 해풍을 맞고 자라, 식감이 아삭하고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